

115.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염,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,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
성별 남 **나이** 54세 **직종** 자동차제조업 **업무관련성** 낮음

1. 개요: 근로자 김OO는 1979.2.21 OO정공 공무부에 입사하였고 1999-2007 동안 차체생산 작업을 수행하던 중 ‘우측 견관절부 극상건염,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,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’이 발생하였다.

2. 작업내용 및 환경: 근로자 김OO는 1979.2.21 OO정공에 입사하여 약 20년 동안 시설 및 장비 보수업무를 수행하다가 1999.8. 차량사업부로 전환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Tail gate(T/G) 및 차체 도어를 장착하였다. 2002.12.-2007.3까지는 차체5부에서 T/G로딩, T/G장착, 리어도어 장착, 프런트도어 장착작업을 하였다. 각 작업마다 수행되는 볼팅작업은 반복적으로 상지를 어깨높이로 올리는 작업이었으나 하루 평균 1.8시간이하로 나타났다. 업무분석 결과에서 T/G 장착시 우측어깨 들기 횟수는 하루 1,800회, 우측어깨 거상시간은 하루 90분이었고 T/G로딩의 경우 하루 우측어깨 들기 횟수는 300회, 우측어깨 거상시간은 35분이었다. 프런트도어 장착에서 하루 우측어깨 들기 횟수는 300회, 우측어깨 거상시간은 5분이었다. RULA를 이용한 볼팅작업의 평가결과, T/G장착은 Action level 4, T/G로딩과 프런트도어 장착은 Action level 2로 나타났다.

3. 의학적 소견: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견되어 2004.2.13-6.3까지 휴업 치료하였으며 현장 복귀하여 작업 중 재차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다. MRI검사에서 극상근건 부분파열과 동반된 삼각근하 및 점액낭염 소견이 보였으며 ‘우측 견관절부 극상건염,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,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’으로 진단되었다.

4. 결론: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김OO은

- ① ‘우측 견관절부 극상건염,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,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’을 진단받았으며
- ② 1979년부터 1999년까지는 시설보수반과 컨테이너 보전반에서 가스배관공사와 장비 보수업무를 수행하여 현재의 차체5부에서의 작업위험과는 양상이 다르며
- ③ 차체5부의 업무분석상 반복적인 우측 어깨의 들어올리는 작업의 순작업시간, 어깨들기 횟수 및 어깨들기 시간을 고려할 때 우측 어깨의 질병 발생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
- ④ 2004년-2005년 기간동안 휴업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장 복귀하여 재발한 것은 작업보다 해부학적 결함 내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어

근로자 김OO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